

## 공인인증시험·교외대회 수상 기재 시 0점, 부모 직업·교외 활동 암시는 감점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사교육의 영향이 큰 학교 밖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예 0점으로 처리하거나 일부 감점합니다.

일단 공인어학시험(토익·토플·텝스·HSK·JLPT·한자능력검정 등)과 교외 경시대회에서 얻은 성적이나 수상 내역, 각종 자격증 명칭과 취득 사실, 영재교육원 교육·수료 여부를 쓰면 해당 내용을 기재한 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이때 교내 수상실적이나 교과목 점수 및 석차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전교 1등을 했다’ ‘수학에서 만점을 받았다’와 같은 서술을 하면 0점 처리됩니다.

한편 성적이나 수상 여부를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에 참여했다’와 같이 우회적으로 서술한 경우는 감점 처리합니다. 논문 투고·등재·발표나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출원·등록, 어학연수·봉사같은 해외 활동 실적, 사설 학원·기관이 추진한 교과 관련 활동 등 학교가 주관하지 않은 활동, 부모·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출신 중학교 등 인적사항도 감점 대상입니다. 동아리명에 학교 이름을 넣어 출신을 짐작하게 하는 문구도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로 꼽힙니다. 감점 폭은 해당 항목 배점의 10~20% 이내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학교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의 대리 작성이나 허위 기재, 표절이 드러나면 입학한 뒤라도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입 자기소개서, 무엇을 쓰면 안 되나요?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자사고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적으면 0점 처리되거나 감점 처리되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쓰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재 김세희 리포터(say2sei@naeil.com)

#### More tip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과 자기소개서 양식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고입정보포털(www.hischoo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학교의 모집 요강도 함께 살펴보세요.